

	보도자료	
2026. 7. 28.(화) 조간[온라인: 7. 27.(월) 17:00]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AI스팸정책팀 강동우 팀장(전화: 061-820-1610, 전자우편: kdw1017@kisa.or.kr) AI탐지대응팀 이규생 팀장(전화: 02-405-4730, 전자우편: gslee@kisa.or.kr)	
참고자료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총 2매

한국인터넷진흥원 성평등가족부와 불법·유해 정보 유통 대응 맞손 **-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 등 추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서울청사에서 체결했다고 2026. 7. 27.(월)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 불법 촬영물 유통 등 지능화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관련 스팸 문자와 유해사이트 정보를 수집·탐지해 성평등가족부에 공유하고, 불법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나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수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스팸문자와 유해사이트 정보를 분석하며 관련 키워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유하고, 스팸문자 및 유해사이트 정보를 분석해 불법성이 확인된 사이트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는 등 불법·유해 정보 유통 차단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러한 양 기관의 협력으로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피해 예방과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은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물과 불법 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이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제도, 기술적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여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